204호

행 정 명 령

뉴욕주 직원을 위한 흑인 노예 해방일 공휴일 선언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부터 2년이 넘은 이후 노예 해방 소식이 텍사스에 전달됨**에 따라** 주 전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Gordon Granger 소장이 연방 군대와 갤버스턴에 도착하여 일반 명령(General Order) 3호를 읽어 남북 전쟁(Civil War)의 종결 및 모든 노예가 자유이며 주 전역의 노예 소유주 사이의 해방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1865년 6월 19일에 자신들의 자유의 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는 자유라는 대의를 발전시킨중요한 이정표를 인정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날 자유를 얻은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의 직접 후손인 뉴욕 주민들이 노예 제도 폐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해방과 관련하여 텍사스주에서 발표된 공식 선언을 기념하는 날인 노예 해방일(Juneteenth) 155주년을 축하함**에 따라**

노예 해방일 기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 인내, 업적을 기리며, 미국의 발전과 우리나라 설립의 근간이 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헌신을 기념함**에 따라**

노예 해방일 기념은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은 고난과 상실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인 희생을 한 사람들과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한 자을 기리며 경의를 표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인류의 가장 슬프고도 소중한 교훈을 발견함**에 따라**

미국 전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공식적인 해방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풍요로움, 시민 평등, 글로벌 리더십에 무궁무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오늘날 브루클린에서 버펄로에 이르는 주 전역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기념으로 노예 해방일 기념일을 축하함**에 따라**

우리 모두가 미국인으로서 공유하는 자유와 시민권을 생각하며 기뻐하기 위해 이 기회를 통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마땅함**에 따라**

이제, 따라서, 나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특히 제4조 1절, 그리고 뉴욕주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19일을 노예 해방 기념일로써 인정하며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주 직원 공휴일로 승인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기존 증가액에 대한 비용 없이 급여 전액을 지불받고 업무를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은 보상으로 1일 휴가를 받게 됩니다.

2020년 6월 1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